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Online Series

2022. 01. 12. | CO 22-02

황진태(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이 채택되었다. 이 글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서 ‘농촌의 도시화’라는 징후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한다. 농촌의 도시화란 농촌과 도시를 각각 개별, 독립적으로 이해해왔던 것과 달리, 두 공간 간의 물질적, 담론적인 상호연계 속에서 농촌의 공간적 변화에 방점을 둔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담겨진 농촌 기반의 도시 이데올로기(소위, ‘평양 따라하기’, ‘삼지연 따라하기’)를 통해 북한 당국은 첫째, 도시인구를 위한 식량공급기지로서 농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둘째, 농촌의 저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잠재적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2월 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이 채택되었다. 이 강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고하고, 만장일치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1964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김일성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¹⁾에 준하는 ‘새로운’ 농촌테제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1~50에 재수록.

이 글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서 ‘농촌의 도시화(rural urbanization)’라는 징후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한다. 농촌의 도시화란 농촌과 도시를 각각 개별, 독립적으로 이해해왔던 것과 달리, 두 공간 간의 물질적, 담론적인 상호연계 속에서 농촌의 공간적 변화에 방점을 둔다.

새로운 농촌테제는 2010년대 초반, 김정은 집권 초기에 전개된 도시개발(려명거리, 미래 과학자거리 등)을 곧 인민의 발전으로 연결시킨 도시 이데올로기가 도시 내부에서 순환되다가 농촌공간으로 확장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촌의 도시화를 뒷받침하는 농촌 기반의 도시 이데올로기(소위, ‘평양 따라하기’, ‘삼지연 따라하기’)를 통해 북한 당국은 첫째, 도시인구를 위한 식량공급기지로서 농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둘째, 농촌의 저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잠재적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일성 농촌테제의 공간적 함의

김정은 농촌테제의 새로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농촌테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의 농촌테제는 테제에 담겨진 전략들이 추진될 공간에 따라서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그의 농촌테제에서 밝힌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프랑스 공산당 이론가이자 도시이론가인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가 1970년에 발간한 『도시혁명(The Urban Revolution)』이 유용하다.

이 책에서 르페브르는 도시를 인구, 행정기관, 높은 건물, 문화시설 등이 밀집된 공간이라는 전형적 정의(定義)를 따르지 않고, ‘도시적 직조(urban fabric)’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하여 비도시 공간(농촌, 교외, 자연 등)이 도시화 과정의 일부로 포섭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즉, 도시민이 소유한 농촌의 별장이나 고속도로, 발전소는 도시 밖에 위치하지만, 도시민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한 경계는 모호해지며, 도시와 비도시 간 상호연계성이 보다 긴밀해진 지점을 포착한 것이다.

그런데 도시적 직조의 일부로서 농촌의 포섭은 단순히 도시민을 위하여 농촌이 착취되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니다. 농촌 또한 도시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농촌주민들은 도시민들의 생활양식을 욕망하게 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농촌의 도시화’가 나타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시적 직조의 일부로서 농촌공간을 접근하는 르페브르의 통찰에 기댄다.

그러면 김일성 농촌테제에서 농촌의 공간을 살펴보자. 김일성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²⁾ 한다는 3대 혁명을 제안했었다. 1994년 2월, 자신의 농촌테제 발표 30주년을 기념하면서 김일성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을 위하여』 노작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농촌테제에서 제기한 3대 혁명이 “획기적인 성과”³⁾를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중국적 해결’을 위하여 이들 혁명을 “한계단 더 심화발전시켜”⁴⁾야 한다고 계속혁명을 강조했다. 또한 김일성의 농촌테제에서는 르페브르가 말한 농촌의 도시화와 유사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그는 “군소재지에는 학교, 병원, 영화관, 서점, 도서관 등 여러 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이 갖추어”⁵⁾져야 한다면서 도시 인프라를 농촌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는 농촌의 도시화의 일례로 볼 수 있다.

김일성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촌에서”⁶⁾의 혁명만을 강조하지 않고, 농촌 밖 도시의 역할도 강조했다. 농촌테제에서 “공업은 인민경제의 지도적 부문이며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농촌에 비하여 앞서나아가고있다”⁷⁾고 밝혔듯이, 1964년에 이미 농업과 공업 간 발전의 격차가 공간상으로는 농촌과 도시로 나뉘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는 “선진적인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만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다”⁸⁾면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⁹⁾을 강조한 것이다.

김일성의 농촌테제는 농민을 포함한 “전체 근로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¹⁰⁾하기 위해 서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인민의 보편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동시에 “도시주민들과 공업을 위하여 더욱 튼튼한 식량, 원료 기지”¹¹⁾로서 농촌의 기능적 중요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농촌보다 도시를 우선하는 공간적 선택성(spatial selectivity)도 확인된다. 이 두 논리는 상충하기보다는 보편적 이익을 앞세운 이데올로기가 특정 공간을 우선시하는 공간적 선택성을 가리는 장막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다.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서 징후적으로 확인되는 농촌의 도시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농촌 기반 도시 이데올로

2)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p. 4.

3)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1994)), p. 10.

4) 위의 책, p. 12.

5)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p. 40.

6) 위의 글, p. 4.

7) 위의 글, p. 8.

8) 위의 글, p. 8.

9) 위의 글, p. 7.

10) 위의 글, p. 2.

11) 위의 글, p. 20.

기도 이러한 상보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의 징후적 특성: 농촌의 도시화

김정은은 이번 새로운 농촌테제를 발표하기 이전인 김일성의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이었던 2014년 2월에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노작을 발표했었다.¹²⁾ 앞서 김일성의 농촌테제를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한 틀을 김정은의 노작에 적용하여 계승과 차이를 확인해 보자. 먼저, 농촌에서의 3대 혁명을 김정은은 받아들이지만, 3대 혁명 중에서 기술혁명에 보다 집중했다. 이는 노작 제목에 ‘농업생산’이 포함되었듯이,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농법(새로운 농법인 유기농법, 임농복합경영방법 등)을 소개하는데 총 23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할애했다. 반면, 나머지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은 “성과적으로 추진”¹³⁾되었다면서 짧게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김일성 농촌테제와의 차이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2014년 노작은 농촌에서의 3대 혁명(특히, 기술혁명을 강조)을 계승한 형태지만, 김일성 농촌테제가 밝힌 농촌에서의 또 다른 전략인 농촌의 도시화는 언급이 없다. 또한 농촌문제에서 도시의 역할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¹⁴⁾다는 한 문장으로 다루면서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처럼 김일성의 농촌테제로부터 3대 혁명(기술혁명 강조, 나머지 2대 혁명 축소)의 선택적 계승과 농촌문제에서 도시의 역할이 현저히 축소되는 변화의 배경에는 아버지 김정일로 부터 권좌와 함께 물려받은 대북제재와 경제적 궁핍에 직면한 집권 초기 상황에서 인민생존의 최소 요건인 식량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를 살펴보자. 2014년 노작에 이어 김일성의 3대 혁명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규정, 계승되었다. 2014년 노작의 기술혁명 부분에서 유기농법, 임농복합경영 등의 새로운 농법이 제시되었듯이, 2022년 새로운 농촌테제의 기술혁명 부분에서는 정보화,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 기조에 조응하여, 농업근로자를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들기, “세계농업발전추세에 맞게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 “과학농사제일주의” 등의 새로운 지향, 구호가 제시되

12) 김정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13) 위의 책, p. 2.

14) 위의 책, p. 2.

었다. 김정은 본인이 밝히듯이,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식량문제 해결은 지속적으로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시켜준다. 다음으로 사상혁명을 살펴보면, 김일성의 농촌테제에서 “농민들의 의식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¹⁵⁾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서도 “농업근로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 뽑아”라고 말한 점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원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강조된 ‘내핍과 헌신의 이데올로기’ 강화가 농촌테제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⁶⁾ 끝으로 문화혁명 부문에서는 “수도의 문화, 노동계급의 문화, 시대의 본보기문화를 지방과 농촌에 끊임없이 전파, 확대하여 농촌문화혁명을 추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술혁명과 사상혁명이 농촌 인민에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채찍’이라면, 문화혁명이 강조한 평양의 문화, 본보기 문화가 농촌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러한 채찍을 상쇄시키는 ‘당근’이다. 문화혁명은 다음으로 다룰 농촌의 도시화와 긴밀히 연관된다.

<표 1> 김일성과 김정은의 농촌테제 비교

역대 테제 주목하는 공간	김일성의 농촌테제	김정은의 2014년 노작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테제
농촌	3대 혁명 + 농촌의 도시화	3대 혁명의 선택적 계승 (기술혁명 강조)	3대 혁명 계승 + 농촌의 도시화
도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비중 축소	언급 없음

출처: 저자 작성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김정은 농촌테제의 새로운 특성은 김정은이 2014년 노작에서는 누락했던 농촌의 도시화이다. 새로운 농촌테제의 구성은 먼저 3대 혁명을 설명하고, 다음으

15)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p. 6.

16)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2-01, 2022.1.1.), <<https://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50043>> (검색일: 2022.1.11.).

로는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라고 밝히면서 농촌의 도시화를 논한다. 새로운 농촌테제에서 밝힌 ‘삼지연시 농촌마을’은 다른 농촌지역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규정된다. 삼지연시는 2019년 12월에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삼지연군(郡), 즉 농촌지역이었다. 김정은이 삼지연을 “평양처럼” 바꾸라는 지시를 내리고서 2010년대 후반부터 재개발 공사를 시작하여, 결국 도시로 변모했다. ‘삼지연시 농촌마을’이라는 독특한 명칭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농촌의 도시화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농촌의 도시화를 강조했을까?

2014년 노작에서 김정은이 농업생산만을 강조하고, 농촌의 도시화를 중시하지 않은 이유는 식량 증대가 도시와 함께 농촌 인민들의 생활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안정적 통치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후 김정은은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즉 일찍이 김일성이 염려했던 도농 간 불균등발전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지난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이행상황을 보고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도시와 촌락 간의 불균등발전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저발전 지역의 주민들이 발전으로부터 소외감과 불만이 상당히 만연했음을 방증한다. 지난해부터 북한 매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구호(“도, 시, 군들 사이의 경쟁열풍”, “자력갱생경쟁” 등)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도 이를 같이 한다. 아래 노동신문에 실린 검덕지구 거주민의 발언처럼, “TV화면을 통해” 김정은이 집권한 2010년대 초반의 평양의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개발부터 최근 삼지연 개발까지 시멘트로 구성된 발전의 스펙터클에 노출된 십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발전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꾸준히 누적되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도농 간 불균등발전 문제가 심화되었지만, 김일성의 농촌테제에서는 농촌에 비하여 발전된 지역으로서 “도시”가 빈번히 언급된 반면, 새로운 농촌테제는 김일성이 강조한 농촌문제에 대한 도시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커녕 “도시” 용어조차 없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불균등발전을 상기시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추측은 무리가 아니며, 도농 간 불균등발전 문제에 북한 당국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1994년 노작과 달리 새로운 농촌테제에서는 농촌의 도시화가 비중 있게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농촌테제에 담겨진 텍스트만으로 도농 간 불균등발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우려와 제2, 제3의 삼지연시와 같은 “사회주의리상촌”을 실제 만들 정책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제4차 전원회의와 새로운 농촌

테제를 보도한 2022년 1월 1일 자 노동신문의 마지막 지면에 실린 함경남도의 오지에 건설 중인 검덕지구의 완공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통해 도농 간 불균등발전에 대한 농촌지역의 주민 인식과 검덕지구가 개발된 의도를 일부 독해할 수 있다.

검덕지구 개발: 농촌 기반 도시 이데올로기로서 ‘삼지연 따라하기’

<그림 1>처럼 북한 매체에서 촌락에 도시를 조성한 보도사진은 낯설지 않다. 그 이유는 검덕지구 개발 이전에 검덕지구가 따라야 할 “본보기 도시”인 삼지연시의 개발과정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지연시가 평양을 따라 한 것¹⁷⁾과 검덕지구가 삼지연시를 따라 한 것에는 내용적 차이가 있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고, 삼지연시는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혁명성지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공간이라면, 검덕지구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앙매체가 주목하지 않은 오지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범한 공간이 평양, 삼지연과 같은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에 답을 구할 실마리는 같은 기사에 실린 검덕지구 주민의 발언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

<그림 1> 노동신문에 실린 완공을 앞둔 검덕지구의 전경



출처: 『노동신문』, 2022.1.1., 8면

검덕지구 입주자가 “TV화면을 통해 삼지연시에 펼쳐진 인민의 리상향을 보면서 정말

17) “김정은, “삼지연, 평양처럼 바뀌라,” 『중앙일보』, 2016.12.28.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꿈같은 행복이 차례졌다. (중략) 도시부럽지 않은 멋진 새집을 마련해주신 (중략)”다는 발언에서 도시에 비하여 농촌의 저발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날 것 그대로 노출되었다. 삼지연시와 같은 발전된 도시에 대한 동경(“도시부럽지 않은”)과 그러한 동경이 주거에 투영(“멋진 새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서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중략) 지방건설에서 또 하나의 본보기”라고 묘사했듯이, 북한 당국은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평양을 따라한 삼지연’, ‘삼지연을 따라한 검덕’으로 이어지는 ‘평양 따라하기’, ‘삼지연 따라하기’라는 농촌 기반의 도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가까운 앞날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도 평양, 삼지연, 검덕지구처럼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이는 대북제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북한 당국이 우려하는 주민들의 정치적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김일성 시절부터 강조되어 온 도시 인구를 위한 ‘튼튼한 식량, 원료기지’로서 농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비도시 지역에서의 도시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 신종 이데올로기는 유효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전망: 사회주의/자본주의 이분법을 넘어선 도시주의의 출현?

김일성은 농촌테제에서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은 자본주의사상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뒤떨어지는 것이 법칙으로 되어있다”¹⁸⁾고 밝히면서, 도시화 과정을 사회주의/자본주의라는 이념의 이분법으로 평가했다. 김일성이 농촌테제의 첫 문장을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농민문제, 농업문제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¹⁹⁾고 기술한 것도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달리 농촌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러시아혁명을 일으킨 레닌의 이론과 실천은 도시 공간과 노동자계급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하여 마오쩌둥은 러시아의 경험이 중국의 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도시가 아닌 농촌을 혁명기지로 삼고, 도시를 봉쇄하는 일명 ‘농촌을 통한 도시포위 전략’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했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이 인식하는 농촌문제는 상이하다.

18)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p. 9.

19) 위의 글, p. 1.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바는 사회주의는 혁명의 공간으로 농촌을 고려했는가, 아닌가라는 교조주의적 해명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본주의 이분법으로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공간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두 이념 중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세멘트”²⁰⁾로 구성된 도시주의(urbanism)가 북한 사회에서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는 데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의 평양 내부의 도시공간이 재편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 이데올로기는 신의주, 원산 등의 다른 도시들에 투영되었다. 집권 10년 차를 맞이하여 발표된 새로운 농촌체제는 사회주의/자본주의라는 오래된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도시적 직조가 북한에서 차츰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이러한 변화를 진단, 전망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KINU 2022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 새로운 농촌체제에서 시멘트 생산의 중요성이 언급되었고, 이어서 1월 6일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여러 광산, 세멘트공장에서 대발파 진행”이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어 재차 시멘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